

■ 법률 칼럼

미군에 복무 중인 분들의 밀입국 배우자나 밀입국 부모의 영주권 신청(Place in Parole)

이민이나 세관을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한 경우 현행 이민법에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시민권자의 부모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601A 면제를 통해서 밀입국의 불법성을 면제 받은 다음 한국에 나가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시민권자로 미군에 복무했거나 또는 복무 중인 경우에 미국 내에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를 법률 용어로 Place in Parole이라고 합니다.

모든 합법 입국자에게는 I-94라는 출입국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출입국 번호는 합법적 입국(Legal Entry)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는 이 합법 입국만 증명되면 현재 서류미비(un-documented: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미국 내에서 시민권 배우자나 자녀의 이민 청원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입국자의 경우에는 이 I-94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601A 면제를 통해서 밀입국의 불법성을 면제(10년/3년 입국 금지의 면제) 받은 다음 한국으로 돌아가 대사관 인터뷰(Consular Process)를 통해 영주권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밀입국한 사람들의 시민권자 배우자나 시

민권자 자녀가 미군에 복무하고 있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명예제대를 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그 배우자/자녀의 이민 청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직계가족(배우자/자녀 immediate family member)이 시민권자이고 미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것을 근거로 이민국에 Place in Parole를 신청합니다.

2단계: Place in Parole이 승인이 되면 이민국이 신청인에게 미국에 새로 입국한 것처럼 새 I-94 입국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3단계: 그리고 이 번호를 가지고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이민 청원(Immigration Petition)을 통해서 한국으로 출국 없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 미군에 복무 중인 자녀들을 둔 밀입국자 부모님들이 이 Place in Parole을 통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미군에 복무 중이거나 또는 과거에 복무했던 밀입국자들은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영주권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교육

UC계 진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 주립대학을 꼽으라면 UC 버클리, UCLA다. 특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학생들 가운데는 UC계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UC 시스템에는 9개 대학이 있다. 앞서 이야기한 UC 버클리, UCLA를 비롯해 UC 어바인, 산타바바라, 샌디에이고, 테이비스, 산타크루즈, 리버사이드, 미시드 등이다.

UC계열 9개 대학 가운데 UC 버클리와 UCLA는 아이비리그에 버금가는 수준의 명문 대학들이다. 이어 어바인, 산타바바라, 샌디에이고, 테이비스 대학들이 2번째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UC계열 대학들의 인기를 반영하듯이 해마다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다.

UCLA의 2020년도 합격률은 14.4%였다. 다음 해인 2021년도 합격률은 14.4%로 전년대비 3.6% 포인트 낮아졌다.

UC 버클리 2020년도 합격률은 17.5%였다. 2021년도는 14.5%로였다. 합격률

은 전년 대비 3% 포인트 낮아졌다. 합격률 10%대는 Most Difficult로 분류된다.

즉 UC버클리와 UCLA는 가장 합격하기 어려운 대학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Most Difficult로 분류되는 대학들은 아이비리그 혹은 아이비리그 급 대학들이다. UC계열 대학에서는 UCLA와 UC버클리이다.

UC계열 전체로 놓고 보면 지원자가 2021년도 지원자가 전년에 비해 18% 증가함에 따라 전체 입학률은 69%에서 65%로 떨어졌다.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평균 입학률은 전년 대비 71%에서 66%로 떨어졌고, 타주 및 국제 학생 입학률은 각각 63%에서 61%, 71%에서 68%로 떨어졌다.

UC버클리, UCLA는 합격도 어렵지만 다니면서 공부하기도 쉽지 않다. UC버클리의 경우 신입생의 4%, 편입생의 18%가 중도에 탈락, 즉 제적을 당하고 있다. 합격도 어렵지만 입학 후 수학하기도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Rank	Campus	Admit Rate (2021)	Admit Rate (2022)
1	Los Angeles	10.8%	14.4%
2	Berkeley	14.5%	17.5%
3	Irvine	29%	29.9%
4	Santa Barbara	29.2%	36.9%
5	San Diego	34.3%	38.3%
6	Davis	49%	46.6%
7	Santa Cruz	58.9%	65.3%
8	Riverside	66%	66.4%
9	Merced	95.6%	90.8%
Total		65%	69.2%

▲ 출처: collegekickstart.com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